

2021년 6월 27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26편 11~12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26편 11~12절]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38장(통364)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다니엘 8장 1~14절(구약p.1246)

1.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삼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래 강변에서이니라
3.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 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4.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5.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 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엟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8.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 말씀선포 /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성도는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며 혹은 우리의 뜻과 생각처럼 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 삼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고 했습니다. 처음 환상을 본지 2년이 지난 시점인 벨사살왕 3년에 다니엘이 새로운 환상을 봅니다. 그러니 이 환상은 앞선 환상의 연장이요, 확대입니다. 그것은 숫양과 숫염소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에 나오는 숫양의 뿔은 각각 메대와 바사를, 숫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긴 뿔은 바사, 짧은 뿔은 메대인데 역사적으로는 메대가 앞섰고 바사는 그 속국이었으나 바사가 독립하면서 메대를 정복하였고, 고레스의 지배 아래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숫염소는 헬라 즉 그리스 제국을 나타내는데, 5절에서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고 했습니다. 여기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라 기록했습니다.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날아다니는 것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신속한 공격력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사용한 전략은 기마대를 이용한 빠른 공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세의 젊은 나이로 마게도냐의 왕위를 계승한 알렉산더 대왕은 순식간에 마게도냐와 헬라를 합병한 대 제국을 건설하고 소아시아, 앗수스에서 바사의 다리오의 대군을 격파하며 두로에서 애굽까지 그리고 바사를 점령한 후 인도까지 진군하여 점령하는데 33세의 젊은 나이로 바베론의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사망하기까지 불과 13년간의 짧은 시간에 대 제국을 건설한 것을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러한 환상으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러토록 정확하고 명확하게 다니엘에게 앞으로 진행될 제국들의 역사를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둘째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1. 악한 일이 득세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선한 자들만이 형통하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악한 자들이 권세를 잡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고 괴로움과 슬픔의 일들이 임하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한 마리의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날뛰면서 힘을 과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서쪽에서 큰 뿔을 가진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그 숫염소는 숫양의 뿔 두 개를 부러뜨립니다. 숫염소에게서 자라나는 큰 뿔 하나가 하늘의 군대와 별들 중 몇 개를 땅에 던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2300주야 동안 성전을 더럽힙니다. 이 환상은 다니엘에게 의문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성전이 더럽혀지고 악이 득세하는 것을 용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상은 다니엘이 본 환상뿐 아니라 우리가 아는 수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천황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믿음의 선진들이 모진 박해를 받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현상에 관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답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악이 정성기를 누리고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을지라도 오직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들을 통제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십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수련하는 교과서 첫 장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어렵고 힘든 일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과 틀리기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는 세상을 따르며 타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더욱 구별되어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는 자들이기에 더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때로는 외롭고 힘든 믿음의 길을 홀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이 번성하는 세상에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정하신 때에 악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

고 굳게 신뢰하며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며 또한 함께 하는 모든 신앙의 지체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이 모든 악의 결말을 주관합니다.

-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해 그 심각함을 아시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이 득세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악의 힘에 압도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이 그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최후에 악을 심판하실 때, 우리의 한탄은 변하여 기쁨의 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승리에 참여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그 계획에 속한 사람들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아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세상의 가르치는 악한 삶의 방식을 거절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악한 권세 아래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병들고 가난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신음을 아시며 함께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악한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이런 삶의 본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영과 육으로 병든 자들과, 악한 자들, 연약한 자, 슬퍼하는 자, 소외 받는 자들, 심령이 가난하며,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큰 권세를 부리는 악한 왕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이 땅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그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실 최후의 승리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조차 악이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은 악을 허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악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며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41장(통367) 십자가를 내가 지고

◎ 폐 회 / 주기도문